
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

2019. 10. 14.



문화체육관광부

순서

I. 추진 배경	1
II. 한국영화의 오늘	2
III. 정책 방향과 목표	4
IV. 중점 추진 과제	7
[전략 1] 창작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한국영화	7
[전략 2] 영화 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	17
[전략 3] 일상 속 영화 향유 문화 확산	27
V. 추진 일정	35

추진 경과

◇ 한국영화 지속성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영화산업발전 도모

- ※ '18.12월 발표 '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' 및 '19.9월 발표 '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' 의 장르별 후속계획으로 수립

◇ 국민 참여를 통한 정책방향 설정 및 추진과제 발굴('18.5~'18.9월)

① (정책방향 설정)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시행

- 내외부 의견수렴 간담회 수시 개최
- 문화체육관광부-영화진흥위원회-한국영상자료원 합동 정책 워크숍('18.6월)
- 영화진흥위원회 비상임 위원 워크숍('18.8월)

② (추진과제 발굴)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및 사업제안 공모 시행

- (1차) '대국민 정책·혁신 아이디어 온라인 제안'('18.6월)
- (2차) '한국영화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온라인 정책제안'('18.8~9월)

◇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통한 계획 수립('18.9~'19.8월)

- 영화학계 등 전문가 온라인 정책설문('18.9월, 123명 응답)
- 전문가 및 영진위 소위원회 간담회('18.10~11월, 총 10회 개최)
 - ※ 제작, 투자, 정책, 온라인산업, 양성평등, 지역영화문화, 기술, 독립·예술영화, 공정산업, 기획개발 총 10개 분야 각 1회 개최
- 영화계 직능단체 간담회('18.12~'19.1월)
- 주요 정책관련 민간중심 토론회 개최('19년 3월)
- 산업혁신 콘텐츠산업 TF 회의(관계부처, 민간 공동참석) ('19년 4월)
 - ※ 문체부-기재부-과기부, 관련 기업 및 단체, 유관 기관(영진위-영등위-자료원) 참석
- 관계부처 의견 수렴 및 세부사항 협의('19년 5월~8월)

I. 추진 배경

1 [미디어환경] 글로벌 영상플랫폼 등장, 영화 유통·소비 행태 변화 대응

- (플랫폼 변화) 온라인 플랫폼 성장에 따른 영화 유통환경과 소비 행태 변화, 5세대 통신 도입 등으로 **온라인 영화시장 확장 전망**
 - *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 153만명('19.4월/와이즈앱) 추산, '18.1월 대비 4배 이상 증가
 - ** 왓챠플레이 이용자 관람영화 편수 월평균 7.3편(1인당 영화관람 횟수 연평균 4.18회)
- (변화대응) 플랫폼 시장과의 건강한 융합을 위한 창작-유통 선순환 체계 확립, 변화한 소비 양상을 고려한 새로운 영화 제작 활성화 필요

⇒ 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영화 유통·창작 지원 체계 마련

2 [산업규모] 꾸준히 성장한 영화 산업, 관객 수 정체 극복 필요

- (관객수 정체) 꾸준한 성장으로 영화산업 매출 지속 증가, 세계 5위 극장 시장규모 달성에도 관객 수 2.1억 명 수준 정체
 - * '18년 극장시장 점유율: 미국 29%, 중국 22%, 일본 4.8%, 영국 4.1%, 한국 4%, 프랑스 3.8%
 - ** '18년 관객 수 2억 1,639만 명으로 전년대비 1.6% 감소, 직전 5개년 평균(21,652만) 미달
- (콘텐츠 획일성) 획일화 된 '홍행공식'에 따른 고예산 영화 제작 증가 및 홍행 부진, 다양한 영화창작의 기반인 독립·예술영화 생태계 악화

⇒ 새롭고 다양한 영화가 창작·소비될 수 있도록 창작 생태계 활성화 필요

3 [정책대상] 영화 수요자 관점의 정책 접근 강조

- (관객지원) 영화감상의 깊이와 폭을 넓힐 수 있는 관람문화 확대 필요
 - 기존의 공급측면 지원 정책과 더불어, 수요자의 영화 접근성을 고르게 확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를 향유하는 관람 문화 지원정책 요구

⇒ 영화 향유 주체로서 관객·수요자 관점의 영화 정책 강화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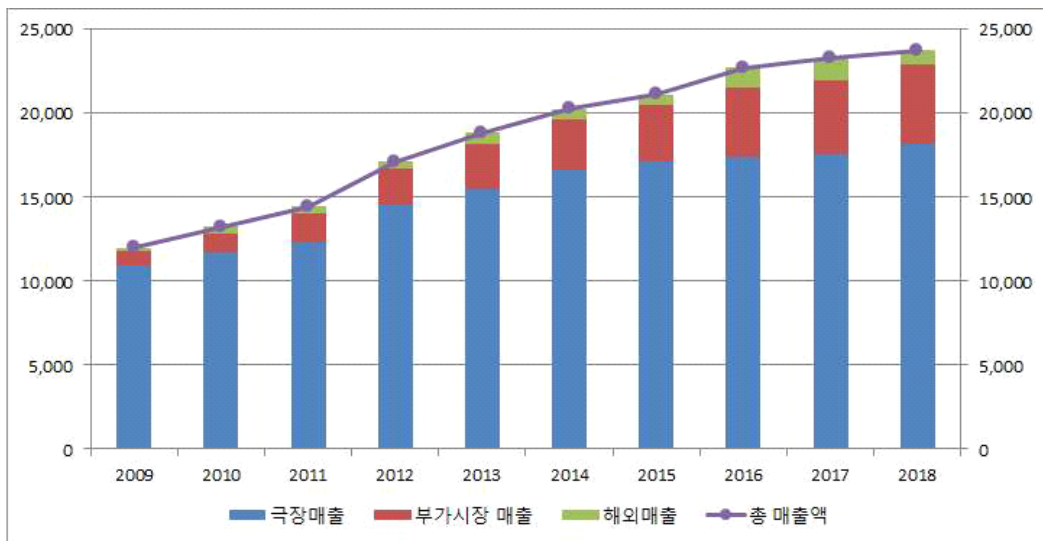
II. 한국영화의 오늘

1 성과

□ 전체 산업 성장 지속

- (전체) 2018년 영화산업 직접매출 2조 3,764억 원('09년 대비 약 2배 성장)
 - (극장중심) '18년 극장 매출 1조 8,140억원으로 영화산업 총 매출의 76.3%
 - * '18년 디지털온라인시장 매출 4,739억 원(20%), 해외수출 885억 원(3.7%)
 - (성장세) 극장 매출 66%, 온라인·해외 매출 400%대 성장('09→'18년)

< 그림 1 > 2009-2018년 한국 영화산업 매출 추이 (단위:억 원)



출처: 영화진흥위원회(2019), 2018년 한국영화산업결산

□ 세계적 수준의 극장 시장 규모 · 자국영화 점유율

- (시장규모) 미국·중국 중심 세계 극장시장에서 5위('17년 7위→'18년 5위) 성적
 - '18년 세계극장시장 점유율* 4%로, 영화강국인 프랑스·인도에 앞섬
 - * 미국29%, 중국22%, 일본4.8%, 영국4.1%, 한국4%, 프랑스3.8%, 인도3.6% (2019 칸 필름마켓)
- (자국영화 선호) 자국영화 관객 점유율이 과반을 넘는 세계 7대 국가
 - * 자국영화점유율 50% 이상 국가(7개): 한국·터키·미국·인도·중국·일본·이란 (2019 칸필름마켓)
- (영화관람 활발) 국민 1인당 연평균 영화관람횟수 4.18회로 세계 최고 수준

2 한 계

□ 영화 다양성을 저해하는 콘텐츠 획일성 확대

- (혁신성·다양성 축소) '홍행공식' 중심의 안정지향적 영화제작에 대규모 자본이 집중되는 경향 심화, 콘텐츠 유사성 증가로 관객 확보 한계
- (열악한 독립·예술영화) 창작에서 배급-상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미비로 영화산업과 문화의 근간인 독립·예술영화 생태계 위축
 - * '18년 개봉작 1,646편 중 독립·예술영화 30%(496편), 그중 한국작품 7%(113편), 전체 독립·예술영화 관객 점유율 4.0%, 한국 독립·예술영화는 0.5%에 불과

□ 영화 산업 양극화 문제 및 지속성장 기반 취약

- (양극화) 고예산 영화와 중·저예산 영화 간 수익률 격차, 스크린 독과점 문제 등 영화 산업 내 양극화 해소 요구
 - * '16년 한국상업영화 수익률: 순제작비 80억원이상 63.08% | 10~30억원 - 42.05%
 - '17년 한국상업영화 수익률: 순제작비 100억원이상 43% | 50억원 미만 10.3%
- (미래성장 대비) 극장·국내 유통 중심 수익 창출로 미래 성장 분야(온라인, 해외수출, 첨단영상기술 등)에 대한 산업 내 대응·지원 체계 미비
 - * '18년 영화산업 총 매출 중 극장 매출 76.3%, 온라인 20% | 해외 매출 3.7%
- (공정근로환경) 임금격차 등 근로환경 불안정*, 남성중심 제작관행**, 영화계 성폭력 문제 등 지속성장 위한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 필요
 - * 10억 미만 영화 스태프 월 평균소득 187만원, 80억 이상 영화 317만원('18년 근로환경 실태조사)
 - ** '18년 여성 감독 영화 6.3%, 제작 15.9%, 주연 27%, 각본 25.4% 수준

□ 영화 제작·향유를 위한 지역 인프라 부족

- (제작인프라) 수도권에 집중된 영화 제작 인프라로 지역 영화인력 활동 기반 부족
 - * 전국 영화기획·제작사업체 80%가 서울에 위치(서울 385개/전체 483개)
- (향유 격차) 거주지역과 환경에 따른 영화 향유 격차 상존
 - * 지역별 1인당 연평균 영화 관람횟수 서울 5.8회, 경북 2.56회로 지역편차가 큼('18년)

Ⅲ. 정책 방향과 목표

1 SWOT 분석

강점 (Strength)

- 국민 1인당 영화관람 횟수 세계 최고 수준(2018년 4.18회) 유지하며, 자국영화 과반 점유 지속(세계 7대국가)
- 한국영화산업 지속성장(10년간 2배), 세계 10위권 내 극장 시장 규모 유지
- 세계시장에서의 한국영화 및 영화기술 수출 증가로 위상 강화
 - 한국영화 완성작 및 기술수출 증가, 한국 영화인·기업의 해외진출 확대

약점 (Weakness)

- 대작 중심 콘텐츠 획일화와 스크린 독과점 현상, 영화산업 내 양극화
 - 독립·예술영화 생태계 위축과 한국영화 문화다양성 제한
- 영화 창작·근로 여건 미흡, 불공정 거래·계약·고용 관행 잔존
-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응체계 미비 및 영화발전기금 한시적 운영(2021년까지)

기회 (Opportunity)

- 전 세계 영화산업의 성장과 수요 증가
 - 인근 문화권(동남아 등) 영화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한국영화 해외진출 교류 기회 확대
- 4차 산업혁명, 온라인 콘텐츠 유통 등 영화산업 패러다임 변화
 - 글로벌 플랫폼 확산, 5세대 통신 상용화 등 개인 디바이스 기반 영화 소비 확대

위협 (Threat)

- 한국영화산업 극장시장 저성장 추세
- OIT 등 글로벌 거대 기업 주도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환경 확대
- 국내외 온라인 불법 유통 콘텐츠로 신시장 성장 저해

□ 약점(W) · 위협(T) 요인을 극복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추진과제 도출

- 영화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창작·유통 선순환 체계 확립
- 유통 플랫폼 변화·기술 발전에 상응하는 영화 산업 성장 기반 확보
-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영화 향유문화 지원정책 수립

⇒ 다양성 확대와 성장기반 강화로, 한국영화산업 새로운 도약

2 전략 체계

비전

영화가 있는 삶, 내일이 있는 한국영화

핵심전략
및 과제

전략 1 창작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한국영화

- 1-1 중소영화 창작·투자 기반 확대
- 1-2 다양한 가치를 표현하는 독립·예술영화 생태계 강화
- 1-3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·합법유통 확산
- 1-4 양성 평등한 영화 창작 환경 지원

전략 2 영화 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

- 2-1 공정·상생 영화산업 환경 조성
- 2-2 영화인 근로 환경 개선 및 전문 인력 양성
- 2-3 한국영화 해외진출 확대 위한 전략시장 지원
- 2-4 첨단영상기술 확산으로 실감콘텐츠 시대 대비

전략 3 일상 속 영화 향유 문화 확산

- 3-1 영화 향유 활성화로 관객 저변 확대
- 3-2 고른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기반 조성
- 3-3 영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확산

추진기반

현장과 소통하는 영화정책 거버넌스

3 3년 후 변화의 목표

추진과제	2018년 <AS-IS>	2021년 <TO-BE>	
1-1 기획개발 지원 강화, 제작자금 조달 다각화로 중소영화 창작 확대	한국영화 관객점유율 51%	탄탄한 기획력 바탕으로 한국영화 경쟁력 강화 한국영화 관객점유율 과반유지	더 다채로운 영화창작
1-2 제작-유통-상영 종합지원으로 독립·예술영화 생태계 강화	독립·예술영화 관객점유율 40% (한국작품 0.5% 수준)	독립예술영화 극장관객점유율 10% (한국작품 3% 이상) 및 공공온라인플랫폼 구축	
1-3 법제도 개선, 합법유통 확산 등 창작자권리보호 강화	온라인 영화 시장 관련 창작자 권리보호 미비	온라인 영화시장 유통 관련 창작자 권리보호 법제도 강화	
1-4 성차별 없는 지원제도 운영으로 양성 평등 영화 창작환경 조성	지원사업 여성심사위원 30% 원칙 상업영화 중 여성감독 6.8%, 여성주연 22.4%	지원사업 심사위원 성비균형 스크린 인콰 성비 불균형 해소로 다양한 경험과 관점의 영화 확대	
2-1 다양한 참여자가 공정하게 경쟁·상생하는 영화 산업 환경 조성	모니터링·조사연구 중심 산업 불공정행위 대응	산업 불공정행위 대응역량강화, 스크린독과점 해소를 위한 법제도 도입	더 튼튼한 영화산업
2-2 전문역량 바탕으로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는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	산업고용 29,546명(2017년) 표준근로계약서 준용률 77.2%	산업고용 32,000명까지 확대 표준근로계약서 확산 정착 스태프 4대 보험 가입률 제고	
2-3 한국영화 해외진출 확대 위한 아시아, 온라인 등 전략시장 지원	아시아지역 완성작 수출액 27.9백만 달러 디지털온라인 매출 4,739억 원 (극장 : 온라인 비중 8:2)	한아세안 영화기구 구축으로 아시아지역 완성작 수출 확대 온·오프라인 통합전산망 구축 온라인 매출 5,500억 원 (온라인시장 비중 확대)	
2-4 첨단영상기술 확산으로 실감콘텐츠 시대 대비	기술수출 3,876만 달러(436억원)	기술수출액 5,000만 달러 달성	
3-1 교육·학술·비평 활성화로 영화 관객 저변 확대	교육·학술·비평 지원 부족 국민 1인당 극장관람 연 4.18회	청소년 영화교육 체계 확립 학술·비평 분야 지원 신설 국민 1인당 극장관람 연 4.5회	더 즐겁고 가까운 영화문화
3-2 지역·일상 속 고른 기회를 위한 기초 창작·향유 인프라 확충	영상미디어센터 부재한 광역지자체 5개	지역영화창작스튜디오 등 지역 창작향유기반 확대, ‘지역 영화문화 협의체’ 운영	
3-3 영화 문화예술가치 제고를 위한 영화유산 가치 보존 및 확산	100년 한국영화 아카이브 자료 보존 및 활용 부족	영화 아카이브 자료 활용을 위한 온·오프라인 플랫폼 확충	

한국영화의 더 나은 내일

IV. 중점 추진 과제

전략 1 창작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한국영화

실행 과제

- 1-1 중소영화 창작·투자 기반 확대
- 1-2 다양한 가치를 표현하는 독립·예술영화 생태계 강화
- 1-3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·합법유통 확산
- 1-4 양성 평등한 영화 창작 환경 지원

1-1 중소영화 창작·투자 기반 확대

【현장의 목소리】

- “기획개발 근간이 취약해진 것이 한국영화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”
- “대기업(대형투자자) 중심 제작 구조와 획일화된 소재가 한국영화의 다양성 위협”
(전문가 온라인 의견수렴)
- “제작·배급까지 2~3년이 걸리는 산업 특성상, ‘17년 도입된 세액공제 제도 연장필요”
(현장영화인 간담회)

【정책 목표】

- 한국영화 창작 생태계 회복 및 중소영화 제작비 조달방식 다각화로 다채롭고 참신한 기획 프로젝트 공급 및 제작 지속
⇒ 한국영화 관객점유율 과반 이상 유지 목표 (* 16년 53.7% → 17년 51.8% → 18년 50.9%)

1 한국영화 시나리오 창작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

기 존	개 선
작품·성과(개봉실적 등) 중심 단절적 지원 → 시나리오 창작인력 육성 미흡 → 영화 완성 단계로 이르는 지원 부족	✓ 시나리오 창작센터를 통한 창작자 역량강화 지원 → 시나리오 특화 교육 및 비즈매칭으로 창작인력 육성 → 창작 시나리오의 영화화 단계까지 유기적 지원

- (전담기관) 전문교육과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한국영화 시나리오 창작(기획개발) 센터 설립·운영(장편, 단편, 다큐 등 전 장르) ('19.6월~)

- (특화교육) 주제별 창작 실무교육* 및 '시나리오 랩(Lab)**' 운영으로 기획개발 전문역량 강화 지원

* ①소재 개발 및 취재, ②스토리 구조 분석 및 기획, ③주요 캐릭터 구축 등

** 프로젝트별 현직 창작자 멘토링 및 컨설팅, 시나리오 개발 집중 워크숍 운영 등

- (투자·제작 매칭) 시나리오 정보 교류·비즈니스 네트워킹 지원으로 콘텐츠 소재를 찾는 제작·투자사와 시나리오 창작자 매칭
 - * 작가·프로듀서-제작사-배급사-투자사 참여 비즈니스 미팅·시나리오 피칭 행사 지원
- (독립작가지원) '신인작가 에이전시' 운영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신인 창작자의 초기 비즈니스 지원(계약 관련 법률상담, 비즈 매칭 등)
- (시나리오발굴) 신인작가 대상 '시나리오 공모전' 운영으로 참신한 시나리오 발굴(연 20편) 및 기획개발 지원사업 지속(연 70편, 선별식)
 - * 시나리오 창작센터 내 교육 및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연계 강화
- (실적기반지원) 개봉영화 관객 수를 점수로 적립하여 해당 제작사의 차기작품 기획비용으로 지원하는 적립식 지원 사업 지속

2 영화산업 정책 투자 확대 및 제작자금 조달방안 다각화

기 존	개 선
연간 총제작비 6% 규모의 영상전문투자조합출자('18년)에도 불구하고, 부분투자 역할로 제작사 육성기반 마련 한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메인투자를 통한 지적재산권(IP) 활용권한 개선 ✓ 영상전문투자 확대 및 금융기관 협력 강화로 한국 중소영화 제작자금 조달방안 다각화

- (투자확대) 정책금융의 한국영화 투자 확대로 강소제작사 육성지원
 - 영상전문투자조합 '강소제작사 육성 펀드(메인투자펀드)' 신설('20년)로 한국영화 투자재원 다변화 및 강소제작사의 지속적 창작 기반* 마련
 - * 제작사의 지적재산권(IP) 활용 권한 보유로 영화 콘텐츠 재생산, 지속적인 수입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강소제작사 육성 환경 조성
- (자금조달) 영화제작사의 독립적 창작을 위한 자본조달 다각화(융자,기부 등)
 - (관계기관 협력)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재원 다각화
 - * '18년 IBK 기업은행·영진위 업무협약(MOU): 영화분야 기업 융자 재원 조성
 - (독립예술영화) 독립예술영화 크라우드 펀딩 지원과 국내영화제·마켓 활용 투자-제작 네트워킹 지원으로 독립예술영화 민간투자 활성화

③ 영화 산업 내 세제 지원제도 효과·활용 확산

- (특례효과 확산) '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' 일몰 연장 및 홍보
 - (일몰연장) '17년 신설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'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'* 일몰기간 연장(~22년) 추진으로 산업 내 혜택활용 기회 확보
 - * 영화를 포함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부를 소득세·법인세에서 공제 ('19년 일몰)
 - (홍보확대) 산업 내 확산 초기 단계인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활용 확산을 위해 영화 제작 기업 대상 컨설팅·홍보 지속
- (기존제도 활용) 중소기업 세제 지원, 연구·인력개발(R&D) 세제지원 등 기존 법 내 다양한 세액공제 활용 매뉴얼 제작·보급 및 컨설팅
 - (매뉴얼보급) 영화산업 내 기업들이 즉시 활용가능한 제도* 종류 및 세부 적용조건 등을 포괄한 매뉴얼 제작·보급('20년~)
 - * 조세특례법 내 중소기업, 연구·인력개발, 창업·벤처기업, 고용증대 관련 공제
 - (전문컨설팅)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세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영화산업 현장의 세제지원 활용도 제고 및 개선사항 발굴 추진

◆ 「시각특수효과(VFX) 후반작업 세제 지원제도 연구」('19년, 한국문화관광연구원)

- “기존 조세 지원 제도 내에 기업들에게 적용 가능한 다양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, 조세지원에 대한 VFX 기업의 인지도가 매우 낮고, 조세 관련 전문 인력도 부족하여 기존 제도의 활용이 어려움”

1-2 다양한 가치를 표현하는 독립·예술영화 생태계 강화

【현장의 목소리】

- “다양성 바탕의 한국영화 새 흐름 조성을 위한 독립·예술영화 지원 대폭 확대해야”
(전문가 온라인 의견수렴)
- “인건비 상승 요인 등을 고려하여 독립영화 제작지원금 현실화해야”
- “극장에 걸리지 못하는 대다수의 독립영화를 위해 유통·배급 과정 지원 필요”
(국민 정책제안)

【정책 목표】

- 시장기능·정부정책·민간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원정책 재설계하여, 영화산업과 문화의 근간인 독립·예술영화 제작·홍보·유통·상영 ‘순환’ 생태계 구축
 ⇨ 독립·예술영화 관객 점유율 10%까지 확대 (* '17년 4.5% → '18년 4.0%)

1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강화로 한국영화 다양성 제고

기 존	개 선
현장·민간 유기적 지원체계 미비 → 공모선정을 통한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유지(연 50여 편, 최대 4억 원까지)	✓ 민간역량을 활용한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강화 → 최저임금, 근로시간 등 제작비 상승요인고려 제작지원 확대 → 영화제 내 독립예술영화제작 프로젝트 지원 등 민간 협력 확대

- (제작지원) 다양한 영화 창작의 근간인 독립·예술영화 제작지원 강화
 - (제작지원) 제작비 상승요인 고려(최저임금인상 등) 상한액 및 지원편수 확대
 - (인프라 활용) 민간·지역 창작기반시설(지역창작스튜디오 등) 활용을 통한 독립·예술영화 촬영 및 후반제작(녹음·DI·DCP 등) 기초 인프라 지원
- (민간협력) 다양한 독립예술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민간역량 활용·협력 확대
 - (영화제) 신인감독 및 참신한 작품 발굴 확대를 위한 국내 개최 영화제 (국제·독립 등) 내 독립예술영화제작 프로젝트 지원
 - (정책협의체)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개선을 위한 민간 전문가 중심 정책 논의 정기 추진 (영진위 내 독립예술영화지원소위원회/7인, '18년 신설)

2 독립·예술영화 상영까지 이어지는 유통·배급 지원체계

기 존	개 선
작품·극장 중심 단절적 지원 지속 → 개별 작품 대상 배급·홍보비 공모지원 → 전용관 중심 지원으로 2차 유통 확산 한계	✓ 독립예술영화 유통·배급 유기적 지원체계 확립 → 컨설팅 및 네트워킹 지원 등 유통·상영 종합지원 → 온라인플랫폼 구축으로 개봉 및 공공·민간 상영 지원

- (유통지원) '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' 신설('20년) 및 개봉지원 확대
 독립예술영화의 온·오프라인 상영 기회 확대
- (공공플랫폼) 독립예술영화 온라인 플랫폼 신규 구축으로 온라인 개봉 및 상영 연계 지원(플랫폼 보유작품 제작·배급사와 민간·공공 상영관 매칭)
- (마케팅지원) 독립예술영화 관객 창출을 돕는 개봉지원 확대 및 전용관 공동 프로그래밍·홍보 지원 등
- (기업·인력육성) 독립예술영화 상영·배급 컨설팅 및 사업자 간 네트워킹 지원

3 독립·예술영화 관객이 즐거운 상영 인프라 강화

기 존	개 선
전용관 설립·운영지원 등 공급자 중심 상영지원으로 수요자(관객) 지원 부족	✓ 독립예술영화 관객 문화 활성화 지원 → 멤버십기반 통합 예매시스템 구축으로 관객 편의 증진 → 전용관 노후시설 개보수, 프로그램 등 관객 관람환경 개선

- (전용 예매시스템) 독립예술영화 관객 편의제고 및 관람문화 활성화를 위한 '독립예술영화 통합 예매시스템(홈페이지·앱)' 구축('19년~)
 - * 실시간 상영·작품 및 인근상영관 정보, 예매(멤버십) 및 관객 소통 페이지 등 제공
- (전용상영관) 독립·예술영화의 안정적 상영기반 확보를 위한 전용관 운영 지원
 - (관람환경 개선) 관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독립예술영화 관람환경 제공, 전용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영시설개선 및 운영 보조('19년~)
 - * ▲시설·장비 개보수 지원, ▲상영관기술표준·시설안전 지원, ▲운영 컨설팅 및 보조금 지원

- (프로그램 역량강화) 전용관 관객 개발을 위한 독립·예술·고전영화 기획전·특별전 등 다양한 상영 프로그램 운영 지원
 - * (프로그래머 역량강화) 우수사례·가이드라인 확산, 세미나 교육 등 전국단위 네트워킹 지원
- (상영기반 확대) 다양한 독립예술영화 상영 활성화를 위한 국내 영화제 (독립·단편·다큐멘터리 등) 활성화 및 복합 상영관 내 전용상영관 확대 추진

4 한국 독립·예술영화 해외진출 확대

- (영화제 진출) 한국 독립·예술영화 해외 우수 영화제(칸, 베를린, 로카르노 등) 출품 지원 및 해외 영화제 프로그래머 대상 국내영화 시사 지원 확대
 - * 출품비용 면제(영화제-영진위 협력), 영화 DVD 국제우편 발송 대행 등
- (해외마켓 활동) 해외 프로젝트마켓 초청작 활동지원 및 신진 독립·예술영화감독 해외 쇼케이스 개최 지원
 - * 해외 필름마켓 한국영화 종합홍보관 운영 및 참가 지원 등
- (국내마켓 활성화) 국내 독립예술영화(극영화, 다큐멘터리 등) 프로젝트·완성작 마켓 지원 확대
 - * 국제 다큐멘터리 마켓 지원 확대('15~'18년 간 국내외 유관 사업체 440개 이상 참여)

1-3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·합법유통 확산

【현장의 목소리】

- “온라인에 유통되는 불법 영화만 차단해도 한국영화 매출액 크게 늘 것”
- “부가관련 수익이 몇 년이 지나도 창작자에게 분배되는 미국과 같은 체계가 절실”
- “우리 영비법에는 ‘영화 창작자’의 법적 지위가 없어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다.”
(현장영화인 간담회)
- “온라인 영상콘텐츠에 저작권 정보가 포함된 유통코드를 도입한다면 불법유통을 쉽게 차단할 수 있을 것”
(온라인 영상플랫폼사업자 간담회)

【정책 목표】

- 영화 창작자 지위를 보호하고, VOD 등 극장 상영 외의 수익이 창작자에게 지속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법·제도 개선
 - 온라인 영상콘텐츠 합법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유통코드 등 기술적 기반 마련
- ⇒ 영비법 내 창작자 지위 신설, 국내외 온·오프라인 불법 영화유통 근절 및 영상콘텐츠 표준유통코드 개발 등 영화 창작자의 권리 보호 기반 마련

1 영비법 내 영화창작자 지위 신설로 권리 보호 기반 강화

- (지위신설) 영리 사업자 중심의 영화비디오법 체계 내에 ‘영화창작자’ 지위를 명문화하여 영화 창작자 보호·지원의 근거 강화
 - (유관법령 연계) 「예술인 복지법」 등 관계 법령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영화창작자 권리 증진의 법적 기반 체계화
 - * (예) 영비법 내 ‘영화창작자’ 지위와 「예술인복지법」 상 예술인 경력증명 연계 등
 - (민관협업) ‘영화창작자’ 세부 범위는 영화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단체 간 협의 등을 기반으로 구체화

② 온라인 시장 등 극장 외 유통시장 내 창작자 권리 확대

- (재상영 수익분배) 극장 상영 이후 장기·지속적 수익 기반이 되는 부가시장(IPTV, 인터넷 VOD 등) 내 창작자 권리 보호 위한 관련법 정비
 - * 부가시장 수익분배 관련 조항을 신설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발의('18.7.10.)
- (제도개선) 부가시장 창작자 권리 보호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
 - (해외사례 분석) 미국, 프랑스, 독일, 영국 등 주요국 사례 분석('19년)
 - * (예) 미국은 이해관계자들(제작사·노조·조합) 간 협상을 통해, 프랑스 등 유럽 다수 국가는 지적재산권법 규정(비례보상의 원칙)을 통해 재상영분배금(Residuals) 보장
 - (국내기준 마련) 영화 창작자 재상영분배금 관련 영화계 의견 수렴을 통한 수익분배 개선 방안 검토

③ 국내외 온라인 합법유통 확산으로 창작자 권리 보호

- (불법유통 대응)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한국영화 국내외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강화(모니터링, 불법파일 삭제·차단)
 - (기관협력) 저작권보호원·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력강화
 - (아시아공동대응) 한-아세안 영화기구 참여 국가 간 온라인 합법유통 확산 위한 관련 정책 공조('19년~)
- (합법유통 확대) 인식개선 캠페인 지속 및 온라인 영상물 표준유통 코드* 개발 연구 등으로 온라인 영화시장 합법유통 기반 마련
 - * 등급·내용·저작권 정보 등을 포함하는 표준유통코드 개발연구(영등위·영진위)

1-4 양성 평등한 영화 창작 환경 지원

【현장의 목소리】

- “영진위 운영과 지원사업 심사 등 정책 결정과정에서 동등한 성비 운영 필요”
(전문가 온라인 의견수렴)
- “영화계 성폭력·성차별 방지, 성 불균형한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 사업 추진 필요”
(국민 정책제안)

【정책 목표】

- 산업 내 올바른 젠더인식과 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우수한 여성 인력의 산업유입을 확대하고, 여성 창작자가 한국영화의 다양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
 ⇨ 지원사업 심사위원 남녀동률 운영, 스크린 안팎 성비 불균형 해소

1 영화계 성차별·성폭력 근절 지원

기 존	개 선
성폭력 실태조사·예방교육과 사후조치 중심 성평등 지원	✓ 영화산업 성차별·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·캠페인 등 적극적 지원정책 시행

- (인식개선) 영화계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행동강령 채택·보급
 - (교육) 관련 학과·제작 현장 등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, 책임자급 교육 강화('19년)
 - (행동강령) 참여형 '한국영화 성폭력 예방 행동강령' 채택과 현장 확산('19년)
 * 해외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예방 행동강령 사례를 토대로 현장 참여 방식으로 진행
- (전담기구) 한국영화성평등센터 '든든'('18년 3월 개소) 운영 강화
 - (피해자 지원) 피해자 상담 지속, 법률·소송지원 강화, 치료기관 연계지원 등
 - (환경조성) 영화산업 성폭력 실태조사,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단 운영 등
- (지원배제) 성폭력 가해자의 각종 지원 사업 수혜 및 심사 참여 배제

2 양성평등 영화 연구 및 통계·분석 강화

기 존
<2017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> 성인지 통계 최초 도입 → 여성인력 등 불균형 산업현황 파악

개 선
✓ 성인지적 관점 산업통계 강화, 분석자료 정례 발간 및 심층 연구·조사로, 양성평등 영화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

- (지수·통계 개발) 한국영화 성인지 지수·통계 개발 및 데이터 확산
 - 성인지 영화통계 체계 및 한국형 벡델지수 개발, 분석데이터 제공
 - * (벡델 테스트) 1985년 미국의 만화가 엘리슨 벡델이 고안한 영화의 성평등 평가 방식
- (정책연구) 영화계 양성평등 정책 활성화 위한 기초연구 및 협의 체계 확립
 - (연구·조사) 양성평등 영화정책 백서 발간 및 산업 내 성평등 실태조사 정례화
 - (한국영화성평등소위원회) 양성평등 정책 관련 영진위 내 전담 소위* 운영
 - * 성 평등 영화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등 수행(7인/18년 구성)

3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지원 사업 심사제도 마련

기 존
공모사업 심사제도 운영 시 여성위원 30% 이상 구성 원칙

개 선
✓ 심사위원 성비 동률 구성(5:5)으로 공적 지원 대상 선정 시 젠더다양성 보장 강화

- (심사위원) 영진위 지원사업 심사위원 성비 동률 구성 추진('19년~)
 - 성 평등한 관점에서 신선하고 다양한 소재의 우수 작품 발굴 확대
 - * 여성 심사위원 구성 원칙 : (기존) 30% 이상 → (개선) 50% 구성 원칙
 - ** ('19) 기획개발·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 사업 → ('20) 영진위 직접 지원사업 대상 전면 확대
- (평가기준) 영진위 지원사업 심사 시 양성평등 관점 평가 강화
 - 창작자·스태프(감독, 작가, 촬영, 프로듀서) 및 주연배우 등 참여인력 성비
 균형성이 높은 작품의 심사 인센티브 도입
 - * (영화산업 성비불균형) 한국 상업영화 중 여성감독 6.8%, 여성주연 22.4% 수준('14~18년)

전략 2 영화 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

실행 과제

- 2-1 공정·상생 영화산업환경 조성
- 2-2 영화인 근로 환경 개선 및 전문 인력 양성
- 2-3 한국영화 해외진출 확대 위한 전략시장 지원
- 2-4 첨단영상기술 확산으로 실감콘텐츠 시대 대비

2-1 공정·상생 영화산업환경 조성

【현장의 목소리】

- “스크린독과점 문제가 지속되는 한국영화 산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영비법 개정 등 정책적 대응방안 검토 필요”
(전문가 온라인 의견수렴)

【정책 목표】

- 영화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재·조정역할 강화, 스크린독과점 문제 해소 추진 등 합리적인 법·제도 정착을 통한 한국영화 문화다양성 보호 및 공정·상생 산업 환경 조성

1 스크린 독과점 문제 해소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립

기 존

기존 법률체계 내 독과점 대응 미비
→ 영화 상영시장 다양성 위축상황 지속

개 선

✓ 스크린독과점 문제 해소 위한 법·제도적 대응 강화로 문화다양성 바탕의 영화산업 지속성장 도모

- (스크린독과점 문제해소) 한국영화 문화다양성 확대 위한 상영 독과점 대응
 - (법제도개선) 스크린 상한제 등 스크린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
 - * '18년 영화소비자행태조사 '스크린독과점으로 선택권 제한' 응답 전체 30%, 25-39세 여성 50%
 - (사후관리) 법 개정 시 영화산업 영향·소비자 선택 확대 효과 등 모니터링 지속

②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감소를 위한 공정환경조성센터 역할 강화

기 존
 '동반성장이행협약 체결(2012) 이후
 모니터링 중심 불공정행위 조사연구 시행

개 선
 ✓ 영화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환경 조성 활동
 ✓ 영화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중재 역할 강화

- (현장지원 강화) 노무분쟁·성폭력 등 영화현장 불공정행위 원스톱 신고·상담지원센터(공정환경센터 서울분소) 운영 및 법률·노무 지원 강화
 - *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(부산) 서울 사무소 운영으로 유기적 현장 대응('19년~)
- (조정기능 강화) 영화산업 내 갈등 조정 역할 강화 및 법적근거 마련
 - * 공정센터의 조정역할 강화 위한 「영비법」 개정 검토 및 공정거래조정원 협력
- (실태조사·연구) '동반성장이행협약('12년 체결) 준수여부 및 불공정행위 실태 상시 모니터링·분석 보고서 발간 및 '영화산업 공정 신호등*' 도입
 - * 상영 데이터 분석 및 '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' 연계로 상영 독과점 현황 표시
- (소위원회 지원) 영진위 내 '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'('07년~) 역량 강화
 - '공정경쟁촉진' 및 '근로환경개선(영화인권리증진소위원회 신설)' 분야로 이원화,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소위 구성으로 전문성 증진
 - * (공정경쟁촉진) 공정거래법률 전문가 등 포함 / (근로환경개선) 노무전문가 등 포함
- (정책협의체) 영화계 직능단체, 기업과 전문가 그룹, 관련 공공기관과 정부가 참여하는 '한국영화 공정환경 정책협의체' 구성·운영('19년~)
 - * 영화 산업 내 각종 불공정 관련 문제 대응 방안 논의

2-2 영화인 근로 환경 개선 및 전문 인력 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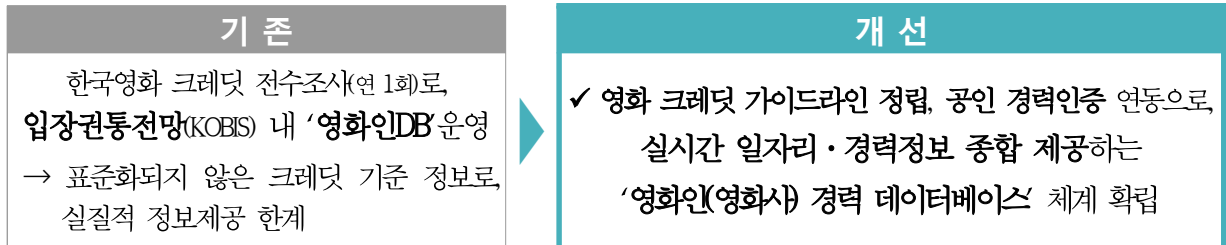
【현장의 목소리】

- “변화하는 제작환경 적응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영화인 대상 교육·강화 필요”
- “신인 창작자에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환경이 되어야”
(영화단체·전문가 의견수렴)
- “프로젝트 단위 고용환경에서 영화인 경력 확인체계 부족”
(‘16년 영화산업 공정상황연례분석)

【정책 목표】

- 영화산업 직업표준체계 바탕의 일자리 연계 경력정보 지원 서비스, 현장 유기적 교육·훈련 강화로 신진·경력 영화인이 안정적으로 창작·근로할 수 있는 여건 조성
⇒ 일하기 좋은 영화산업 환경 조성으로 역량 있는 전문 인력 산업 유입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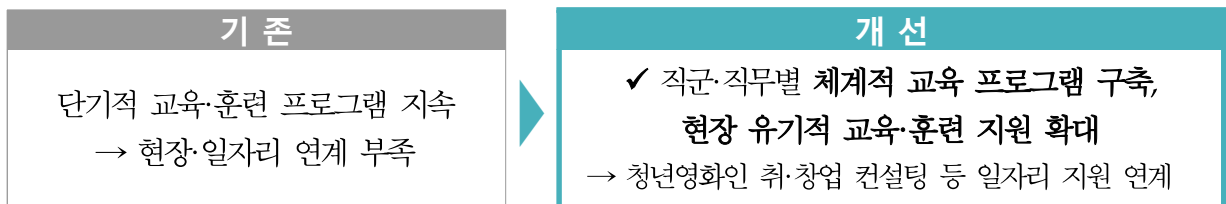
1 영화인 경력관리 체계 개선 지원



- (크레딧) 경력 인정 근거가 되는 한국영화크레딧 가이드라인 마련(‘19년~)
 - * 크레딧(Credit): 영화가 끝난 후 제작참여자 명단이 표시되는 ‘엔딩 크레딧’ 등을 의미
영화인 경력 및 작품 제작 기여도 인정 근거가 됨
- (경력관리) 영화인 경력 데이터베이스 구축·일자리 연계로 실효성 있는 영화산업 내 경력관리 체계 마련
 - (DB 고도화) 영화인 참여 작품, 작품별 계약기간, 수행역할 등 상세 경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경력정보체계 고도화
 - * 표준 식별자(영화코드 등)·메타데이터 설계, 유관기관 DB(영상자료원 등) 연계 추진

- (경력인정) 「예술인 복지법」 등 연계로 영화산업 경력 공인 기반 마련
- (일자리연계) 경력단절 영화인 재취업, 프리랜서 영화인 프로젝트 계약 지원 등 영화사 연계 일자리 매칭 서비스 도입 연구

② 한국영화아카데미 교육과정의 현장·일자리 연계 강화



- (현장교육 확대) 영화인 경력단계별 현장 교육훈련 프로그램 다각화
 - * 첨단영화제작 및 창작역량 강화교육(인문사회, 과학, 예술 등 분야별 전문가 초청 특강)
 - ** 지역 영화인 균형 지원을 위한 전국 거점도시 중심 교육훈련 지원(연 5개 지역 목표)
- (신진인력 양성) 실무역량 갖춘 신진인력 양성 위해 한국영화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운영 강화
 - (산학연계) 기업·현업인 협력 통한 현장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 운영
 - * 주요 투자·배급사, 제작사 관계자 초청 심화특강, 분야별 현장 인력 교·강사 운용
 - (장편제작교육) 기획에서 배급까지 장편영화(실사 극영화/애니메이션)를 제작·완성하는 아카데미 내 '장편제작 연구과정' 확대('20년)
- (전문인재 육성) 아카데미 기술전문 교육과정 신설('20년) 및 글로벌 영화교육 교류 확대로 첨단기술·국제교류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육성
 - * 첨단영상(VFX, VR 등) 및 음향 등 영화기술전문교육과정(KAFA Tek) 신설('20년) 및 아세안 등 해외 영화 교육기관과 교류·협력 강화

③ 종사자 권리 보호 지원으로 영화인 권리증진 도모

기 존	개 선
산업 실태조사·신고센터 운영 등 공정환경조성센터 내 부당 노무행위 중심 영화인 지원 서비스 운영	✓ 영화인 권리증진 위원회 운영으로, 현장 밀착형 정책개발, 실시간 대응 서비스 강화 (*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 서울사무소 운영)

- (근로환경 개선) '영화인 권리증진위원회(영진위 소위)' 신설·운영으로 영화 산업 근로환경 개선, 법률 자문, 건강증진(정신건강 포함) 지원 강화('19년~)
- (표준계약서) 영화산업 표준계약서 개정·신규 개발 및 모니터링 지속
 - 법·제도 변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 추진('19년~)
 - *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및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조항 반영 등
 - 독립영화 등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신규 표준계약서 개발과 보급
 - 영화 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를 위한 모니터링·실태조사 지속
- (고용보험) 예술인 고용보험이 영화인의 직업 특성에 맞게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예술인복지재단 등 유관 기관 협력 강화
 - 영화제 스태프, 독립·저예산 영화 스태프 등 단기 계약직 영화인들을 위한 고용안전성 강화 방안 마련
 - * 영진위 내 영화제 스태프 처우개선 TF, 독립영화인 근로환경개선 TF 등 운영('19년~)
- (노동시간단축 대응) 주52시간 근로제 도입('18.7월~) 관련 업계·협단체 등의 합의 바탕으로 합리적 현장 운영체계 마련 및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
 - (현장지원) 영화산업 근로매뉴얼 마련, 노무교육 및 일자리 체질개선 컨설팅 지원('19년~)
 - * 직능단체 협력을 통한 주 52시간 대응 매뉴얼 제작 및 현장 배포
 - **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영화현장 대상 정보제공 및 교육 시행

- (표준보수) 근로실태조사 등 표준보수지침 연구 및 보급 노력 지속
 - 노사정협의체 활성화('19년~)를 통한 표준보수지침 보급과 준용률 제고
 - * '15년부터 시행한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(안) 마련을 통해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의 변화를 추적·조사하고, 올바른 표준보수 개념 정립 및 효과적 보급 방법 마련

4 영화산업의 다양한 참여자 간 상생·협력문화 조성 지원

기 존	개 선
<p>대기업의 산업 참여 및 영향력 확대로 소수 참여자 중심 불균형한 산업 구조</p>	<p>✓ 중소기업 직능단체 등 다양한 산업 참여자의 협상력 강화 및 양극화 해소 지원으로 상생 기반 마련</p>

- (직능단체 지원) 영화산업 내 직능단체 역량 강화* 지원, 불공정 사건 개별대응 과정에 영진위 연계** 강화
 - * ① 직능단체 정보접근·조사 및 각종 계약 관련 법률자문기능 강화 지원, ② 제작사·투자사와 직능단체 간 단체협약 체결 확대 지원
 - ** 성폭력·계약관련 분쟁 등 단체 회원 피해 자체 대응과정에 필요 시,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 및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등의 법률·노무자문 기능 연계
- (노사정협의회) '17년 하반기 이후 잠정 중단된 영화산업 노사정협의회 운영 재개('19년~)

2-3 한국영화 해외진출 확대 위한 전략시장 지원

【현장의 목소리】

- “한국영화 내수시장의 구조와 규모의 한계 극복 및 고립된 제작 구조 탈피를 위하여 아시아 지역으로 영화산업·문화의 인적, 물적 교류 활성화 필요”
- “온라인 시장의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온라인 박스오피스 집계 필요”
(전문가 온라인 의견수렴)
- “글로벌 플랫폼이 우리 영화의 온라인·해외 진출 채널을 독점하는 것에 우려가 큼. 국내 영상플랫폼의 성장을 위한 지원도 필요”
(현장 영화인 의견수렴)

【정책 목표】

- ‘한-아세안 영화기구’ 설립 및 해외 교류 대상·방식 다각화로 한국영화 활동영역 확대
⇒ 세계 5대 영화 산업·문화 강국으로 성장 도모 (2018년 극장시장 기준 세계 5위)
- 온라인 시장의 건강한 유통체계 확립과 지원 확대로 영화 산업 신 시장 성장 기반 마련
⇒ 디지털 온라인 시장 비중 35%까지 확대하여, 극장시장 저성장 한계 극복
(* 17년 18.8% → 18년 20.7%, 세계 주요국 극장 대 온라인 시장 비중 5:5 수준)

1 아시아 영화 동반성장으로 지속가능 협력기반 마련

기 존
미국, 중국, 유럽 중심 교류 지원으로, 동남아 등 전략시장 교류·진출지원 부족

개 선
✓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영화시장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속 교류·성장 기반 마련

- (추진기관) ‘한-아세안 영화기구’ 설립 추진으로 교류 허브역할 수행
- (협력사업) 아시아 각국의 영화산업 발전 및 문화교류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
 - 아시아영화 공동 프로모션, 불법유통 대응, 국가별 특별전 교류 등
 - * ‘아시아복원영화제’ 개최 (해외 각국 복원작품 상영 및 국제복원워크숍) 등
 - 현지 진출 국내 기업·영화인과 한-아세안 영화기구 협력사업 연계·지원 등
- (필름마켓) 한국영화 해외수출 중심 창구로서 ‘아시아필름마켓’ 육성 지원
 - * 기존 영화제 중심의 교류를 넘어서 실질적인 영화콘텐츠 교역의 장으로 육성
- (아시아영화 플랫폼) 국가별 영화산업 및 비즈니스 정보(투자·제작 등) 공유 및 아시아 영화 온라인 상영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·운영

② 온라인 영상콘텐츠 시장 지원 강화

기 존	개 선
오프라인(극장) 중심 지원체계 지속으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부족	✓ 온라인 영상시장 지원 체계 구축 ✓ 온라인 통합전산망 구축으로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

- (신시장 지원) 플랫폼 기반 해외진출 지원 및 특화 콘텐츠 제작 활성화
 - (해외진출)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, 통번역 지원 등 국내 영상플랫폼 및 온라인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
 - (콘텐츠) 온라인 영상소비 특성과 5G 등 기술 발전을 고려*한 새로운 유형의 영상콘텐츠(웹무비·중편, VR 영화 등) 창작·제작 지원 신설 검토
 - * 짧은 영상콘텐츠 선호/ 5G 기반 VR·인터랙티브 영화(대용량) 유통가능성 확대 등
- (유통정보) 온라인 영화시장 활성화 및 투명한 유통 구조 확립 위한 '온라인상영관 통합 전산망' 구축(20년) 및 표준유통코드 개발 연구
 - (통합전산망) 온라인 영화 유통정보 통합 관리 및 향후 온·오프라인 영화 정보 통합 제공, 빅데이터 활용으로 유용한 비즈니스 정보*제공(앱 개발)
 - * (예시) 온라인/오프라인(극장) 관객의 선호 영화 장르 및 재생시간 등 비교·분석
 - (표준코드) 등급·내용·저작권 정보 등을 포함하는 '표준영상유통코드' 개발 연구로 온라인 영상물 합법유통 시스템 기반 마련
- (법·제도) 온라인 영상 시장 진흥 기반으로써 법률·제도 개선 검토
 - (법률정비) 영비법 내 '온라인 영상플랫폼 사업자' 지위 신설 등 법체계 정비
 - (등급분류) 온라인 영상물 자율등급분류 도입 대비 기준 및 매뉴얼 개발

③ 해외진출 지원방식 다변화로 한국영화·영화인 활동영역 확대

- (재외공관 협력) 문화외교 전략지역 등 한국영화 해외진출 전략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주재 문화원, 대사관 등 재외공관과의 협력 강화
 - (해외상영·쇼케이스) 해외 한국영화 상영행사 및 쇼케이스 개최 확대
 - * 신북방·신남방 등 문화외교 전략지역 교류 확대 추진(‘한-아세안영화기구’ 연계)
- (중국진출 지원) 한국영화 진출 활성화 위한 영진위 중국사무소 운영체계 개편 및 교류전략 다각화(현지 영화인·영화사 네트워크 구축 등)
 - * 베이징, 상하이 외 기타지역 ‘지방성 통신원 제도’ 신설로 교류지역 확대
 - **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의 베이징 현지서비스 강화(현지 비즈네트워킹 지원)
- (해외영화제·마켓) 칸(프랑스), 베를린(독일) 등 주요 국제영화제 및 해외 마켓의 한국영화·영화인 진출 지원 사업(출품·참가 및 교류지원) 지속
 - * ‘18년 40개 국제영화제(칸, 베를린, 로테르담, 시체스 등) 62개 작품 참가 지원
 - 11개 해외필름마켓(칸, 베를린, 홍콩 등) 참가지원사의 수출계약액 약 3억 6천달러
- (정보제공) 해외진출 활성화 위한 **영화 비즈니스정보 웹사이트** 운영
 - (해외진출) 해외 시장 연구* 강화 및 국내 영화인 대상 해외 진출 정보 제공
 - * 해외영화시장 국가별 선호·흥행 장르 분석, 리메이크 등 수출확대 전략 연구
 - ** 영진위 ‘온라인비즈니스센터(KoBiz)’ 내 ‘니하오차이나(중국정보제공코너)’ 신설(‘19년~)

2-4 첨단영상기술 확산으로 실감콘텐츠 시대 대비

【현장의 목소리】

- “5G 등과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시각특수효과(VFX)산업의 확장성은 계속될 것, 원천기술의 관점에서 가능성이 무한한 시장이지만 지원 축소로 업계 어려움 가중”
- “첨단영상기술(VFX) 분야 전문인력 육성 학과가 전무, 민간 학원의 교육은 전문적인 심화와는 거리가 멀”

(첨단영상기술산업 전문가 의견조사)

【정책 목표】

- 첨단영상기술력 기반 국내 영상산업 경쟁력 제고하여 한국영화 미래 성장 기반 확립→ 기술수출액 5,000만 달러 달성 (*18년 기술수출 3,876만 달러(436억원))

□ 첨단영화 제작활성화 및 영상기술역량 강화

기 존
첨단영화기술 관련 지원 규모 제한적 → 신기술 업계 확산·인력 양성 부족



개 선
✓ 산업현장 첨단기술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으로 첨단영상기술 분야 산업 경쟁력 강화

- (기술산업) 시각특수효과(VFX)·가상현실(VR) 등 국내 영화 기술산업 성장 위한 강소형 기술기업 기술선도 콘텐츠(가상영상체) 제작 지원 신설(‘20년)
 - * 가상영상체(Digital Creature, 디지털 크리처): 컴퓨터 그래픽(CG) 기술로 제작한 각종 생명체. 인간과 동물뿐 아니라 괴물과 같은 상상 속의 캐릭터까지 포함
- (기술인재) 한국영화아카데미 내 ‘첨단영상기술과정(KAFA-Tek)’ 신설(‘20년)로 영화·영상기술 분야 우수인재 양성
 - (전문교육) 영상기술(VFX, DI, 편집 등) 및 음향기술 전문 교육과정 신설 및 실감형 콘텐츠(VR 영화) 등 신기술 적용 영화 제작실습 교육 지속
 - (취업지원) 국내 각종 영화제·취업박람회 등에서 영상기술 분야 취업 설명·연계 지원(영상기술업체 공동상담부스 운영 등)

전략 3 일상 속 영화 향유 문화 확산

실행 과제

- 3-1 영화 향유 활성화로 관객 저변 확대
- 3-2 고른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기반 조성
- 3-3 영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확산

3-1 영화 향유 활성화로 관객 저변 확대

【현장의 목소리】

- “시대정신의 기록인 영화예술에 대한 가치와 이해를 높여야”
- “영화교육은 미래 관객을 창출하는 산업의 미래로서, 어린이·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필요”
(전문가 온라인 의견수렴)
- “감상활동처럼 영화를 접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쉬운 교육을 우선해야”
- “청소년 영화교육 과정에서 현장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면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.”
(현장 간담회)

【정책 목표】

- 좋은 영화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주체적으로 감상하는 관람 문화 활성화
⇒ 국민 1인당 연평균 영화 4.5회 관람하며, 세계 최고 수준 유지
(*1인당 연평균 영화 관람횟수 추이 : 2017년 4.25회 → 2018년 4.18회 (미국 3.7회, 호주 3.5회 등))

1 청소년 영화교육 활성화로 미래 관객 영화 이해력 강화

기 존
일부지역 청소년 대상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단기 운영



개 선
✓ 청소년 영화 교육체계 확립, 시범학교 운영 확대 → 건강한 미디어시민, 미래관객으로 성장하도록 지원

- (표준교육체계) ‘영화 이해력’ 바탕의 청소년 영화교육 확산을 위한
표준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현장 제공(표준 교·보재 제공, 교사교육 지원)

* 영화 이해력(필름 리터러시, Film literacy)
: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, 영화 선택을 위한 내재적 의식 능력, 영화의 콘텐츠 및 기술적 요소를 비판·분석하는 능력, 영화 언어·문법을 이용하여 영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

- (시범학교) 영화교육시범학교 운영지원(19년 2개교) 및 확대 검토

- (청소년 활동지원) 청소년 영화감상활동을 다채롭게 만들고, 영화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활동(청소년 영화제 등)을 적극적으로 지원
 - (감상활동) 지역별 극장-학교-영화인 협력을 통한 청소년 영화감상활동 (감상 전·후 영화 이해교육, 감독과의 대화 등) 활성화
 - (청소년영화제) 전국 청소년영화제-참여 학교·학생·교사 간 네트워킹을 구축하고, 국내 영화제와 연계한 프로그래밍 컨설팅 등 운영 지원
 - * 영화제 운영 지원을 통해 참여 교사 부담을 경감하여 청소년영화제 활성화에 기여
- (진로교육 연계) ①직업 관련 영화 활용교육, ②영화 관련 진로교육 등 청소년 진로교육과 영화 분야 연계 강화
 - * 교육부·문화부 업무협약('19.2월): '영화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' 포함

② 지역 영화 공동체 활성화 지원



- (공동체 상영) 독립예술영화 등 다양한 영화에 대한 일상 속 접점을 넓히는 관객 주도형 '우리 동네 소극장(공동체상영)' 활성화 지원('20년~)
 - (소극장 발굴) 독립·예술영화 등 다양한 영화를 일상에서 보다 쉽게 접하도록 도심 상영 공간 발굴* 및 운영지원(최소장비 및 프로그램지원 등)
 - * 공공 문화시설(도서관, 문화회관 등) 및 민간(갤러리·북카페 등) 상영 가능 공간
 - (관객주도) 관객 주도 작품 선정 및 관객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
- (지역 큐레이터 양성) 소극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전문 큐레이터 및 시민 프로그래머 양성 및 활동 지원(영상미디어센터, '영화문화 협의체' 등 연계)

③ 영화 학술·비평 지원 확대

기 존	개 선
2010년 이후 영화 학술·비평 분야 지원 전무	✓ 폭넓은 학술연구·비평 지원으로 영화 학술기반 강화 및 미학적 가치 확산

- (영화학술연구) 영화 관련 범분야 학술 연구기반 강화 및 연구자 양성
 - (융합연구) 인문·기술 등 타 분야와 연계한 영화 학술연구 지원
 - * (대상) 영화 관련 학계, 분야별 직능단체, 유관기관 및 개인 연구자 등
 - * (내용) 영화사, 영화이론, 영화기술, 영화미학, 영화산업 및 정책 등
 - (학술행사) 영화 학술가치 생산 확산을 위한 학술 페스티벌, 포럼 개최
 - (연구기반) 한국영화사 및 영화연구 기반 강화를 위한 온라인 자료 제공 서비스 확대(한국영상자료원)

- (영화비평) 건강한 영화 향유환경 조성 및 영화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비평 지원
 - (매체 확대) 다양한 형태의 영화비평 활성화 및 관객 공동체 확산 지원
 - * '독립예술영화 전용관 통합예매 시스템' 내 영화비평 페이지 개설 등
 - (비평가 지원) 한국영화 비평 공모 시행 및 '시민영화비평학교' 운영

3-2 고른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기반 조성

【현장의 목소리】

- “지역, 계층, 세대와 관계없이 고르게 영화·영상문화가 보급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균등한 영화문화 정책 발굴, 실행 필요”
(전문가 온라인 의견수렴)

【정책 목표】

- ‘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’ 구축 ‘영화문화 협의체’ 운영으로 지역 자생적 영화 향유 활성화
- 장애인·비장애인 ‘동시관람시스템’ 구축으로 전국 57만명*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향유권리 보장
(* 2017년 등록장애인 기준)

1 영화 접근환경 개선으로 국민 문화향유권리 증진

기 존	개 선
<p>도서산간 거주민, 장애인 등 국민 문화 향유격차 해소를 위한 영화문화 향유 프로그램 지원</p> <p>* 한글자막·화면해설(배리어프리) 영화 연 30편, 전국 70개관 운영연 5만명 관람</p>	<p>✓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‘동시관람 시스템’ 정착 지원</p> <p>✓ 문화소외지역으로 더욱 쫘쫘히 찾아가는, 다양한 영화 향유 프로그램</p>

- (장애인향유권) 장애인·비장애인의 동시관람 환경 구축 및 정착지원
 - (기술기반) ‘한국형 동시관람 시스템’** 개발(19.6월 특허등록/영진위 자체개발) 및 업계·단체 협력 등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도입 추진

* 시청각장애인이 특수기기(고글, 모니터, 헤드셋, 이어폰 등)를 활용해 자막과 해설을 개별적으로 수신하여 비장애인과 동시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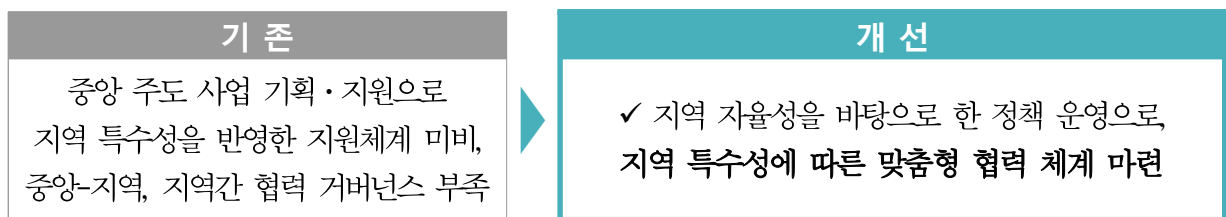
- (자막·해설 영화) 문화소외계층(시청각장애인, 노년층 등) 향유권 강화를 위한 **한국영화 자막·화면해설 제작*** 및 온·오프라인 활용 확대

* 2019년 한국영화(실질개봉)의 약 20%(30편)에서 점진적 확대

** 시·청각장애인 영화관람지원 서비스 ‘가치봄’ 브랜드 신설(19.4월)

- (지역격차 해소) 문화소외지 영화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속
 - (찾아가는영화관) 도서산간, 군부대, 읍·면 등 문화소외 지역으로 '찾아가는 영화관'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(관객과의 대화, 영상나눔버스 연계 등)
 - * 지역 영화문화 표준 지원체계 연구 및 '지역 영화문화 협의체' 연계로 지역 특화 프로그램 제공
 - (작은영화관) 영화관이 없는 지역의 작은 영화관 대상 기획전 프로그램 (고전·독립·예술영화 등) 운영지원 확대
 - * '영화문화 협의체' 연계로 작은영화관 기획전 운영 지원('19년 10개처) 및 전국 확산

② 네트워크·협력 중심 지역 영화문화 협의체 구축



- (지역협의체) 지역 중심 '지역 영화문화 협의체(가칭)' 구축
 - (자원 활용) 영상미디어센터, 영상위원회, 지역 영화 단체, 도서관 등 지역의 기존 활동기관·단체를 해당 지역의 '영화문화 협의체(가칭)'로 지정·지원
 - * 안정적 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등
- (사업체계 개선) 지역 문화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운영을 위한 지역주도 사업 기획·운영체계 확립
 - * (기존) 영진위 등 중앙 중심 사업기획 및 전달 → (개선) 지역주도 사업기획·운영
 - ** 지역별 우수사례 확산·공유로 지역 간 협업유인 강화('영화문화 협의체' 연계)
- (거버넌스) 지역단위 영화정책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 내 공공·민간 전문가 정책 협력·교류체계 구축

③ 주민 참여 기반 지역 영화 생태계 강화

기 존	개 선
대도심·수도권에 편중된 영화 산업·문화 인프라	✓ 지역 창작 인프라 (지역영화제작스튜디오) 구축으로 지역 자생적 영화 창작 생태계 구축

- (지역거점 구축) '지역영화 창작 스튜디오(가칭)' 중심의 지역 영상 인프라 구축 및 기초지자체 허브역할 강화('19년~)
 - * '19년 창작스튜디오 2개소(제주·합천) 및 후반작업시설 2개소(전주·김해) 선정
 - (전문인력 교육) 지역 일자리 창출형 영상전문 인력 양성 및 지역영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영화·영상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(창작스튜디오 연계)
 - * 지역 영화·영상 후반제작(VFX, 편집, DI·DCP 등) 및 장비운영 전문인력 양성
 - ** 지역 영상미디어센터·지역 영화문화 협의체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
- (지역영화 기획·제작) 지역소재 영화 발굴 및 지역 영상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
- (주민 영화향유) 지역민 주도 영화향유 프로그램 운영 및 공공상영 지원
 - (시민지원) 지역민 영화향유 프로그램 기획·운영 및 소모임 지원 등
 - * 시민영상제작 및 영상제전 개최, 소규모 지역 영화문화 공동체 지원 등
 - (공공상영)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 독립예술영화 기획 상영 지원

3-3 영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확산

【현장의 목소리】

- “그간 산업 진흥 중심 영화 정책 실행으로, 영화 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아카이브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졌음. 영화 아카이브의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 영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확산하는 노력 필요 ”

(전문가 온라인 의견수렴)

【정책 목표】

- 영화 아카이브 활용기반을 강화하고, 다양한 **향유 프로그램**(상영, 전시, 연구 등) **추진**하여 우수한 한국영화를 일상에서 향유하도록 지원
- 남북교류 및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사업 등 한국 영화유산 확산 위한 노력 지속

1 한국영화 아카이브의 적극적 활용 기반 마련(한국영상자료원)

- (공공 아카이빙) 한국 독립·예술영화의 안정적인 보존과 기획전 등 공공 상영활용을 위한 공공 보존(아카이빙) 확대
- (활용지원) 아카이브 영화 중 **활용성이 높은 주제**의 작품을 선정해 디지털 복원 및 공개, **콘텐츠 활용 프로그램** 제공
- * 한국고전영화 VOD 서비스 개선: 고화질 서비스(SD→HD) 및 다국어 자막 삽입 추진

2 남북 영화문화 교류 활성화

- (교류협력기반) 남북 영화산업·문화 교류 활성화 협력기반 마련 및 교류방향 수립을 위한 **‘남북영화교류특별위원회(18.7월~)’** 구성 및 운영
- * ‘00년 교류 시작후 영화 <황진이> 금강산 촬영 등 활발한 교류 있었으나, ‘09년부터 단절
- (남북영화교류) 영화를 통한 남북 간 민족공동체 정서를 나누고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**남북영화 및 영화인 교류 지원**
- * 해외 주요 국제영화제 남북영화 특별전 개최 추진, 남북영화 학술 포럼 개최 등

③ 한국영화 100년 문화·유산 가치 확산

※ (한국영화 100주년 기념일) 2019년 10월 27일

- (100년 기념사업) 공공·민간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한 ‘한국영화 10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’ 구성(18.10월~) 및 기념사업 추진
 - (영화유산가치 확산) 고전필름영화 ‘디지털시네마’ 지원, 특별상영전 및 학술세미나 개최, 한국영화 100년 기념영화 제작(100인[감독] 100초 옴니버스) 등 영화유산 가치 확산
 - * 재외공관 및 국내개최 국제영화제(부산, 전주 등) 등 한국영화 100년 기념특별전 개최

- (영화유산 확보) 해외소재 한국고전영화 발굴 추진(한국영상자료원)
 - 해외소재(중국, 러시아, 일본 등)의 한국 극영화 및 한국 관련 기록영상 조사 발굴 확대로 영상자료원 내 한국영화유산 보존 확대
 - * 1960년대 이전 제작된 한국영화의 83% 유실(448편 유실/총 540편 추정)
 - ** 영상자료원이 보유한 일제강점기 한국영화(78편)의 94%(73편)를 해외 발굴

V. 추진 일정

추진과제	추진일정		
	2019	2020	2021
[전략 1] 창작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한국영화			
1-1 혁신적 중소기업 창작·투자 기반 확대			
① 한국영화 시나리오 창작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			
○ 한국영화 기획개발센터(‘#S1’) 설립·운영			
○ 시나리오 공모전 등 시나리오 발굴 지원			
○ 차기작 시나리오 기획개발 지원			
② 영화산업 정책 투자 확대 및 제작자금 조달방안 다각화			
○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·투자			
○ 강소제작사 육성 펀드 신설			
○ 한국영화 제작자본 조달 다각화			
③ 영화산업 내 세제지원 제도 효과·활용 확산			
○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홍보 확대			
○ 기존 세액공제 활용 매뉴얼 제작·보급 및 컨설팅			
1-2 다양한 가치를 표현하는 독립·예술영화 생태계 강화			
① 독립예술영화 제작 활성화로 한국영화 다양성 제고			
○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확대(장·단편, 다큐)			
○ 민간협력을 통한 독립예술영화 제작 활성화			
② 독립예술영화 상영까지 이어지는 유통·배급 지원체계			
○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지원센터 신설			
③ 독립·예술영화 관객이 즐거운 상영 인프라 강화			
○ 독립예술영화 통합 예매시스템 구축·운영			
○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운영·관람환경개선 지원			
○ 국내영화제 개최 지원(독립·단편·다큐 등)			
④ 한국 독립·예술영화 해외진출 확대			
○ 독립예술영화 해외 영화제 및 마켓 진출 지원			

추진과제	2019	2020	2021
1-3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· 불법유통 대응			
① 영비법 내 영화창작자 지위신설로 권리보호 기반 강화			
② 온라인시장 등 극장 외 유통시장 내 창작자 권리 확대			
○ 재상영 분배금 관련 해외사례 연구 및 제도개선			
③ 국내외 온라인 합법유통 확산으로 창작자 권리 보호			
○ 한 아세안 영화기구 참여 국가간 불법유통 대응 공조			
○ 온라인 영상물 표준유통코드 개발연구			
1-4 양성 평등한 영화 창작 환경 지원			
① 영화계 성차별·성폭력 근절 지원			
○ 한국영화 성폭력 예방 행동강령 수립			
② 양성평등 영화 연구 및 통계·분석 강화			
③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지원 사업 심사제도 마련			
[전략 2] 영화 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			
2-1 공정·상생 영화산업환경 조성			
① 스크린독과점 해소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립			
②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감소 위한 공정환경조성센터 역할 강화			
○ 영화현장 불공정행위 원스톱 신고·상담 지원센터 운영			
2-2 영화인 근로 환경 개선 및 전문 인력 양성			
① 영화인 경력관리 체계 개선 지원			
○ 한국영화 크레딧 가이드라인 마련			
○ 영화인·영화사 경력 데이터베이스 구축			
② 한국영화아카데미 교육과정의 현장·일자리 연계 강화			
○ 현장영화인 역량강화 지원			
○ 한국영화아카데미 내 교육과정 확대			
③ 종사자 권리 보호 지원으로 영화인 권리증진 도모			
○ 영화인 권리증진 소위원회 신설·운영			
④ 영화산업의 다양한 참여자 간 상생·협력문화 조성 지원			
○ 영화산업 노사정 협의회 운영			

추진과제	2019	2020	2021
2-3 한국영화 해외진출 확대 위한 전략시장 지원			
1 아시아 영화 동반성장으로 지속가능 협력기반 마련			
○ '한-아세안 영화기구' 설립 추진			
2 온라인 영상콘텐츠 시장 지원 강화			
○ 온라인상영관 통합 전산망 구축·운영			
○ 신 시장 종합지원 체계 마련(지원사업 신설, 법제도 개선 등)			
3 해외진출 지원방식 다변화로 한국영화 영화인 활동영역 확대			
○ 재외공관 협력 해외상영·쇼케이스			
○ 중국진출 지원(영진위 중국사무소 운영 개선)			
○ 해외영화제·마켓 출품·진출 지원			
○ 해외 비즈니스 정보 제공			
2-4 첨단영상기술 확산으로 실감콘텐츠 시대 대비			
1 첨단영화 제작활성화 및 영상기술역량 강화			
○ 기술선도 콘텐츠(가상영상체) 제작지원 신설			
○ 한국영화 아카데미 기술 전문교육과정(KAFA-Tek) 신설			
[전략 3] 일상 속 영화 향유 문화 확산			
3-1 영화 향유 활성화로 관객 저변 확대			
1 청소년 영화교육 활성화로 미래 관객 영화 이해력 강화			
○ 청소년 영화 표준교육체계 개발·보급 및 시범학교 운영			
○ 청소년 영화 관련 활동지원 및 진로교육			
2 지역 영화 공동체 활성화 지원			
○ '우리동네 소극장' (공동체상영) 지원			
3 영화 학술·비평 지원 확대			
3-2 고른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기반 조성			
1 영화 접근환경 개선으로 국민 문화향유권리 증진			
○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개선(동시관람 시스템, 콘텐츠 제작)			
○ 지역 영화향유 격차 해소 지원			
2 네트워크·협력 중심 지역 영화문화 지원체계 구축			
○ 지역별 '영화문화 협의체' 구축			

추진과제	2019	2020	2021
③ 주민 참여 기반 지역 영화 생태계 강화			
○ 지역영화 창작 스튜디오(가칭) 구축			
3-3 영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확산			
① 한국영화 아카이브의 적극적 활용 기반 마련			
○ 공공 아카이빙 확대 및 활용지원			
② 남북 영화문화 교류 활성화			
○ 남북영화교류특별위원회 운영			
③ 한국영화 100년 문화·유산 가치 확산			
○ 한국영화 100년 기념사업 추진			
○ 영화유산 확보를 위한 해외소재 한국고전영화 발굴			